

‘사랑’이란 가면 뒤 폭행·가스라이팅... ‘악마’가 된 남친



파멸 부르는 데이트 폭력

〈상〉유명BJ에 피해 본 여성

“남자친구에게 맞았다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제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것 같았거든요.”

광주여성전화 사무실에서 광주일보 취재진과 만난 이모(여·30)씨는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던 일을 털어냈다.

이씨가 지목한 가해자는 인터넷 방송BJ이자 전 프로게이머 A(31)씨. 이씨는 A씨로부터 3년여 동안 폭언과 폭행, 가스라이팅에 시달리면서 ‘교제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씨는 우울증 때문에 자해와 극단 선택까지 시도했지만, A씨와 관계를 끊거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씨처럼 광주·전남에서 ‘사랑’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있는 교제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팬으로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

동거 시작하며 폭언·폭력 시달려 우울증 생겨 자해·극단선택 시도

피해자는 두려움에 신고도 못해 광주·전남 지난해만 4000건 발생

2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19-2023)간 112에 접수된 교제폭력 관련 신고는 2019년 1173건에서 2020년 989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1년 1132건, 2022년 1982건, 2023년 2254건으로 증가 추세다.

전남도 2019년 1002건, 2020년 1161건, 2021년 1271건, 2022년 1803건, 2023년 1750건의 교제폭력 관련 신고가 꾸준히 증가했다. 광주·전남에서 매년 하루 8건 가량의 교제폭력 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광주에서 올해 5월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는 1055건에 달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5.9%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교제

‘교제폭력’

교제폭력은 남녀가 교제하고 있는 과정에서 둘 중 한 명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으로 상대방에 대한 권력적 통제 우위를 유지할 때 교제 폭력에 해당한다. 교제폭력은 성폭행, 성희롱, 협박, 욕설, 물리적 폭력, 감추,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과거에는 데이트폭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됐지만, ‘데이트’라는 단어가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한다는 우려 때문에 지난해부터 수사기관과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교제폭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폭력 특성상 피해자들이 신고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큰 만큼 ‘암수범죄’ (발생했지만 검거·적발되지 않은 범죄)가 많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씨를 통해 교제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들어봤다. 광주여성전화 관계자는 이씨의 사례를 전형적인 교제폭력 패턴으로 꼽았다.

평소 게임 방송을 즐겨보던 이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방송 BJ이자 전프로게이머인 A씨의 팬이 됐다. 인터넷 방송 채팅으로 연락하다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광주에 살던 이씨는 경기도에 사는 A씨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 2022년 충남 아산시로 이사까지 했고 곧 동거를 시작했다.

이 때부터 교제폭력이 시작됐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씨는 A씨가 다들 때마다 폭언과 욕설을 내뱉었다고 했다.

초반에는 말다툼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다툼이 더욱 잦아지면서 A씨가 몸을 세게 밀치거나 뺨을 때리는 일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지난해 7월에는 응급실에 가야할 정도로 폭행의 수위가 강해졌다고 한다. 폭행 수위는 점점 높아져 목을 조르고 넘어진 이씨의 몸을 발로 차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갈비뼈가 아파서 숨을 쉬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그것보다 제가 쓰러져있는데도 계속 게임을 이어가던 A씨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럼에도 이씨는 A씨와 헤어지거나 신고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우선 폭력의 수위가 3년여간 아주 천천히 올랐기 때문이다. 자신도 모르는 새 폭행에 길들여졌다.

이씨는 또 가스라이팅을 한 이유로 꼽았다. 이씨는 “당시에는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A씨가 때린 것

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냈다.

“A씨가 폭행 후 곧바로 사과하며 잘해주고 내가 용서를 반복했다”고 설명한다. 이씨는 임신 중절까지 겪었다. A씨와 관계를 청산 한지 지난해 11월 말께였다.

A씨가 동거하던 집에서 떠나자 고향인 광주로 돌아온 이씨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거듭했다.

이씨의 부모는 경기도 가평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씨에 대한 폭행사실을 묻자 A씨는 “이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는 것을 말리려다 명이 생겼을 뿐 때린 적 없다”며 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인권상담소장은 “교제폭력과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 폭력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 직업, 생활패턴 등 신상정보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린다”며 “교제폭력의 경우 상대를 길들이고 통제하는 수단으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그 강도가 점점 더 세질 수밖에 없다. 범죄를 예방하고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제도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광주·전남 레미콘 총파업 전격 철회

운송비 6000원 인상 합의

24일 예정됐던 광주·전남지역 레미콘 총파업이 전격 철회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 레미콘 운전기사들이 파업을 하루 앞두고 레미콘업계와 운송비 인상안에 합의했다.

23일 한국노총 레미콘운송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레미콘 제조사들과 진행된 최종 협상에서 1회 운송비 인상폭을 60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노조측은 1회 운영당 6만 3000원이었던 단가에

서 1만4000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6000원 이상 올리기가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 24일 총파업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노조측과 사측이 최종 협상에 나서 타결을 이끌어냈다.

협약서에는 2024년도 운송비를 1회당 60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레미콘산업의 관건인 건설사의 갑질행위(무상물차, 무상신호수, 가격덤핑, 납품대금 지연, 물 추가 첨가 행위 금지 등) 근절과 권익 보호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녹음속으로 산책 광주·전남에 많은 비를 뿌린 장마가 소강상태에 접어든 23일 오전 광주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산책로를 시민들이 걷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학생 추행 무죄 받았지만...교사 징계 정당

광주지법 행정1부 판결

지적장애 학생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징계처분도 무효가 될까.

법원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되나 교사로서 부적절한 행위여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전남의 한 고등학교 A교사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2021년 8월 “온도 차이를 확인해 보자”며 담요 안으로 발을 넣어 여학생 신체를 접촉해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전남도교육청은 같은해 10월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후 재판부

는 2022년 2월 “학생 신체에 접촉한 것은 사실이나, 고의가 있었다거나 추행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A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판단과 별도로 도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는 2022년 3월 A씨에게 ‘감봉 한 달’ 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징계처분 무효와 직위해제로 미지급된 임금 39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는 A씨에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위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등이 있어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감봉1개월 처분 또한 교사로서 부적절하고 교사의 품위유지 의무에도 위반되는 것을 고려한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마에 한풀 꺾인 더위...26일 장마 다시 북상

장마가 시작된 광주·전남의 한낮 최고기온은 다소 누그러지겠다.

한차례 장맛비를 뿌리고 남하한 정체전선은 26일 이후 다시 북상해 27일부터 광주·전남에 다시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겠다.

23일 광주지방기상청은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남하하지만, 24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광주·전남 일부 지역에 5mm 내외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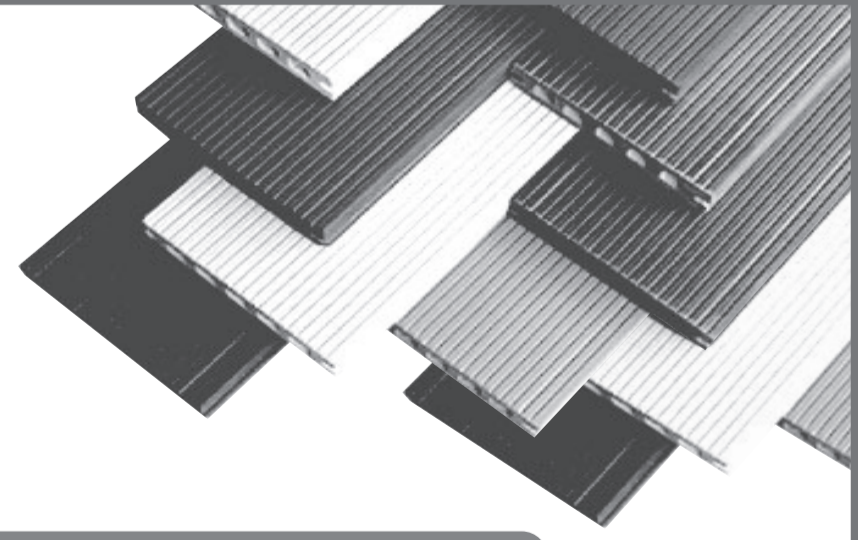
24일 광주·전남 낮 최고기온은 25-29도까지 올라 다소 누그러지겠으나 습도가 높아 최고체감온도가 31도 내외로 올라다소 덥겠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16-20도, 낮 최고기온은 26-29도로 예상된다.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내린 광주·전남 올해 첫 장맛비는 50-81mm 가 내렸다. 이 장맛비로 도로 일부가 침수되고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비로 광주·전남에는 총 13건의 비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광주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4건과 도로 침수 우려 2건이 접수됐고, 전남소방본부에는 나무 쓰러짐 5건과 침수 우려 2건이 접수됐다. 비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